

5급 공무원 시험에 헌법추가, 집중면접 도입

- 인사혁신처, 2017년도 국가직 공개채용 제도 변경내용 공개 -

I. 개요

1. 5급 공채, 외교관후보자 선발시험

- (1) 5급 공채시험과 외교관후보자 선발시험의 제1차 시험에 '헌법'과목이 추가된다.
- 헌법은 객관식 문제로 수험생 부담을 줄이기 위해 과목 합격제(60점 이상)를 실시하며,
 - 1차 시험(2017년 2월 25일 예정)의 1교시에서 헌법(25분)과 PSAT 언어논리영역(90분)을 차례대로 평가한 뒤, 2, 3교시 시험을 치르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 ※ 헌법과목 관련 사항은 2015년 입법예고(2015. 2. 17)를 통해 이미 안내한 바 있으며, 시험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사이버국가고시센터에 게재
- 1차 합격자는 헌법 과목 합격자 중 PSAT 성적순으로 결정된다.
- (2) 면접 타당성과 신뢰도를 높이고, 수험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이들간 치렀던 면접을 통합한 '일일 집중면접방식'*과 심화된 집단토의, 개인발표가 도입된다.
- 수험생 간 토의만으로 이뤄졌던 집단토의 방식을 바꿔, 면접위원이 직접 토론에 개입해 질문하는 '심화면접'으로 운영하고,
 - 그룹별 개인발표에서 1인 개인발표로 변경해, 개인발표 후 면접위원의 압박식 문답방식으로 직무능력을 심층 평가할 예정이다.
 - 또한, 개인발표와 개인면접을 별도 평가실에서 치르게 돼 개인발표와 개인면접의 교차평가가 가능해졌다.
- * 기존의 면접단계간 대기 시간을 없애고, 총 면접시간은 유지해 집중평가
- ** 5급 공채시험 및 외교관후보자 선발시험의 세부 면접운영 계획은 추후 안내
- (3) 2018년부터 외교관후보자선발 제2차 시험 일정을 5급 공채시험(행정직)과 같이 운영하게 된다. <외교관후보자 선발시험 일정변경 사전예고>
- 현재는 외교관후보자선발 제2차 시험이 5급 공채시험보다 약 한 달 앞서, 시험 응시생의 시험 준비기간 부족 등 불편 호소가 있어 왔다.

- 이에, 정부는 수험생 편의를 보장하고, 준비된 외교분야 인재를 선발하기 위해 시험 일정을 조정, 운영할 계획이다.

※ 2017년도까지는 5급 공채시험 일정과 외교관후보자 선발시험 일정을 현행과 동일하게 각각 별도로 운영할 계획

구분	1차시험	2차시험	3차시험
5급 공채(행정)	2.25	6.27~7.1	10.23~10.24
외교관후보자	2.25	5.11~5.12	9.8~9.9

2. 7, 9급 공채시험

(1) 실제 영어 활용능력 평가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던 7급 공채의 '영어' 과목이 텡스, 토익 등 검정시험으로 대체된다.

- 영어 검정시험 점수는 원서접수 때 제출해야 하지만, 필기시험 전날(前日)까지 취득한 성적도 인정받을 수 있으며,
- 영어능력검정시험의 성적 유효기간은 3년으로, 유효기간 만료가 가까워진 수험생은 사이버국가고시센터에서 사전등록 후 사용할 수 있다.

(2) 7·9급 공채에서 만점의 0.5% ~ 1%를 가산하던 정보화자격증 가산점이 폐지된다. 정보화자격증은 공무원 시험을 위한 '불필요한 스펙 쌓기'라는 의견이 꾸준히 제기되었고, 수험부담을 가중시킨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3. 화장실 이용 사전신청제 등

(1) 시험의 공정성과 수험생 편의를 조화시키기 위해 내년부터 「화장실 이용 사전 신청제」를 시범실시한다.

- 사전 신청제란 원서접수 시에 시험 중 화장실 이용 희망자를 미리 신청받는 것으로, 해당 신청자들은 별도의 고사실에서 시험을 치르며, 화장실 이용 시에는 부정행위 방지를 위해 소지품 검사 등을 받아야 한다.
- 화장실 이용 사전 신청제는 내년 인사혁신처 주관 경력경쟁채용시험 등에서 시범적으로 운영한 뒤, 결과에 따라 확대 실시여부를 검토하기로 했다. ※ 시범실시 대상 채용시험은 추후 사이버국가고시센터를 통해 안내
- 그동안 정부는 공무원 시험에서 부정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공무원 채용시험 중 화장실 이용을 제한해 왔다.

(2) 이밖에 내년도 국가직 공무원 공채 선발규모는 올해(5,372명)보다 651명(12.1%) 늘어난 6,023명으로 확정됐다.

- 이는 법정부적 차원에서 적극적인 일자리 창출을 위해 선발인원을 크게 확대한 것이며,
- 원활한 대국민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해 9급 공채 선발인원이 790명(19.2%) 증가했으며, 5급 방재안전 직렬을 공채로 첫 선발하는 등 변화하는 행정수요를 반영했다.

(3) 한편, 정부는 그동안 5·7·9급 공채 면접시험에서 복장 등에 관한 기준, 지침을 제시한 바 없었으나, 일부 지나친 정장, 미용·화장 등 수험생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평상복 등 ‘복장자유화’를 권장기로 했다.

(4) 김동국 처장은 “2017년부터 공무원 채용제도를 직무능력중심으로 한층 강화하였고, 편의 제공을 위해 수험생 의견을 수렴하여 운영방식을 보다 효과적으로 개선하였다.”며 ‘앞으로도 공직자로서 필요한 소양을 갖춘 우수 인재 선발을 위해 정책적 노력을 다할 것’이라 밝혔다.

Ⅱ. 5급 공채시험 및 외교관후보자 선발시험 제1차시험 시간표

구분	시험시간		진행사항 및 시험과목
수험생 방송교육	09:20~10:00	40분	
1교시 시험	10:00~10:25	25분	헌법
	10:25~10:30	5분	언어논리 문제책 배부(5분)
	10:30~12:00	90분	언어논리 영역
중식	12:00~13:30	90분	13:30까지 시험실 입실 (수험생 교육 : 13:30~14:00)
2교시 시험	14:00~15:30	90분	자료해석 영역
휴식	15:30~16:00	30분	16:00까지 시험실 입실 (수험생 교육 : 16:00~16:30)
3교시 시험	16:30~18:00	90분	상황판단 영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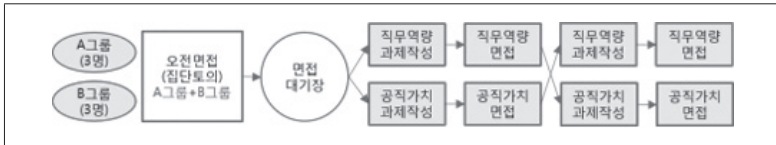
Ⅲ. 5급 공채 면접시험 개선 내용

1. 집중 면접방식 도입

- (1) (1,2일차 면접 통합운영) 부문별 특화된 면접질문으로 면접의 타당성·효과성을 제고하고, 수험생의 면접응시부담을 최소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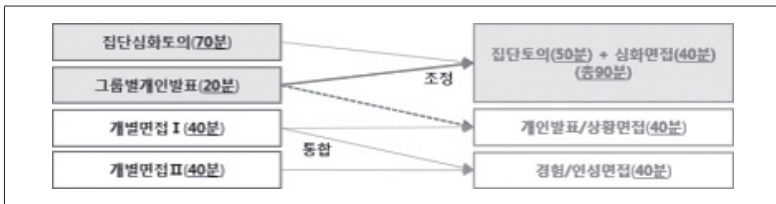
구분		1평가실(직무역량)			2평가실(공직가치)		
		위원1	위원2	위원3	위원4	위원5	위원6
오전	집단토의·심화면접(90분)	◎	◎	◎	◎	◎	◎
오후	개인발표 / 상황면접(40분)	○	○	○			
	경험 / 인성면접(40분)				○	○	○

- (2) (교차 면접 실시) A, B 두 그룹으로 구분하여, 오전은 A, B그룹 통합조로 오후는 A, B그룹이 교차하여 2개 평가실에서 면접실시



2. 면접기법 개선

- (1) (집단토의방식 개편) 면접위원이 직접 개입하여 질문하는 심화면접방식을 추가하여 실질적 토론 운영
- (2) (개인발표방식 개편) 그룹별 개인발표에서 1인 개인발표로 변경하여 개인발표후에 면접위원과 압박식 문답방식으로 변경



* 상기 면접시간은 예시로, 세부 시간운영 계획은 추후 면접안내를 통해 확인

** 외교관후보자 선발시험 면접방식도 이와 유사하게 준용하여 운영할 계획